

2028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대응전략



지 상 범의
입시 토크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단순한 제도 변화를 넘어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대한민국 대입 지형은 2028학년도를 기점으로 거대한 전환기에 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내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완화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교육당국이 내신 등급의 표면적 변별력을 낮추는 동시에 성적표에서 표준편차를 삭제하기로 한 결정은 대학이 학생의 실질적 위치를 파악할 정밀한 통계적 도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명분 뒤에 내신 기록의 질적 평가 강화와 대학별 고사의 실질적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입시 방정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표준편차가 사라진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성취도별 분포비율이다. 대학은 이제 이 지표를 통해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 여부를 엄격히 감시한다. 특정 과목에서 A등급을 받은 학생이 과도하게 많은 학교의 내신 1등급은 대학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려워

진다. 반면 변별력을 확보해 A등급 비율을 적절히 통제된 학교에서 얻은 높은 원점수는 학생의 진정한 학업 역량으로 간주된다. 결과적으로 변별력을 잃은 정량적 수치 대신 대학은 면접과 서류 평가를 통해 학생을 검증하려 하며 이는 모든 전형이 사실상 학생부종합전형의 성격을 띠게 되는 전형의 수렴 현상을 초래한다.

과거 9등급 체제에서 대학은 학생의 성적표에 기재된 표준편차를 활용해 집단의 학업 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8학년도부터 이 정밀한 척도가 사라짐에 따라 대학은 정보의 비대칭 상태에 놓인다. 대학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학생이 선택한 과목의 명칭과 그 이수 경로인 궤적에 주목한다. 고교학점제 환경에서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는 그 자체로 학생의 학업적 용기와 전공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비록 최종 등급이 다소 낮더라도 물리Ⅱ나 고급 수학 또는 융합 과학 탐구와 같은 심화 과목을 정면으로 돌파한 기록은 표준편차가 사라진 성적표에서 학생이 우수한 집단 내에서 치열하게 학업에 매진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 이는 고교 유형에 따른 유불리 논쟁을 넘어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기주도적 탐구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내신 변별력의 약화는 필연적으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진다. 2028 통합형 수능은 국어와 수학에서 선택 과목이 사라짐에 따라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문항으로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공통 과목의 실질 난이도 상승을 유발하며 대학은 이를 통해 내신 성적에 포함된 거품을 걷어내는 최종 필터로 활용한다.

또한 학생부 기록의 주관성을 보완하기 위해 대학은 면접 고사의 비중을 높이거나 방식을 다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논리적 추론 능력을 검증하는 심층 구술 면접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2028 대입 개편은 우리에게 숫자가 아닌 역량을 증명하라고 요구한다. 부산시교육청의 전수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전 과목에서 완벽한 성취를 거두는 학생은 여전히 극소수이며 대학은 그 희소성을 찾아내기 위해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볼 준비를 마쳤다. 이제 수험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 전문가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JSB진로전략연구소장

서학개미 유턴 ‘머뭇’... RIA에 붙은 물음표



기 지 수첩
허 정 연
(자본시장부)

“5월 안에 국내시장복귀계획(RIA)로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면 세금이 없다는데 맞나요? 그런데 환율도 높고, 지금 팔면 손해 아닌가요?”

최근 증권사 고객 상담에서 반복되는 질문이다. 환율 안정을 위해 도입된 RIA 계좌 수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작 자금은 쪼뼔쪼뼔 움직이지 않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나들며 고 환율 고착화 우려가 커지자, 해외투자 확대가 원화 약세를 부추렸다는 책임론도 제기됐다. 해외주식 매수를 위한 달러 수요가 환율 상승 압력을 키웠다는 시각이다.

이에 정부는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로 자

금을 돌리면 세제 혜택을 주는 RIA를 내놨다. 개인 투자자의 달러 수요를 낮춰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기대에 못 미친다. 출시 일주일 만에 계좌는 약 5만7000개로 늘었지만, 실제 유입 자금은 3300억원에 그쳤다. 해외주식 보관액이 200조원을 웃도는 점을 감안하면 0.15% 수준에 불과하다. 계좌는 늘었지만 돈은 움직이지 않는 셈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미국 주식 매도에 신중하다. 수익률과 환율, 재진입 시점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적립식으로 미국 주식을 사들이는 투자자에게 RIA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미국 증시 조정에도 낙폭이 제한적인 종목이 적지 않고,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도 변수다. 여기에 국내 증시 역시 변동성이 커 자금을 옮길 뚜렷한 대안이 부족하다.

결국 정책과 시장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

셈이다. 투자자는 세제 혜택보다 타이밍을 우선하고, 자금은 쉽게 움직이지 않는 형국이다.

아쉬운 건 RIA의 설계다. 현행 제도는 특정 시점까지 매도와 1년 보유를 동시에 요구하는 ‘기한 집중형’ 구조로, 투자자에게 한 번에 큰 결정을 강요한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오히려 자금 이동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된다.

현행처럼 1년 보유를 전제로 최대 혜택을 주는 단일 구조는 개인투자자로 하여금 진입 부담을 키운다. 최고 한도는 유지하되 일정 기간 이상의 중기 보유 구간(예를 들어 6개월 기준 2000만원 등)을 두고 혜택을 나누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세제 혜택은 마련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혜택의 크기가 아니라,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납득할 수 있는 구조다.

/zelkova@metros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일 (음 2월 15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돈을 좀 써야 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60년생** 건강의 중요성을 느끼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72년생** 일에 열중하다 보면 일신에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84년생** 흥한 기운이 있습니다.
- 49년생**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하게 됩니다. **61년생** 피로가 쌓여 신경성 증세가 올 수 있습니다. **73년생** 지출이 동결되어 한숨 돌리게 됩니다. **85년생** 몸과 마음 안정을 취해야 할 시기입니다.
- 50년생** 밝게 하루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2년생**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하루입니다. **74년생** 계획은 내일로 미루세요. **86년생** 욕심을 너무 부리면 큰 코 다치게 됩니다.
- 51년생** 전전은 잠시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63년생** 시비가리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75년생**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87년생** 안장은 무조건 피하도록 하세요.
- 52년생** 수단과 방법을 가릴 때가 아닙니다. **64년생** 오랜만에 활력이 넘치겠습니다. **76년생**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면 좋은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88년생**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 53년생** 고집스러운 생각을 조심하도록 하세요. **65년생** 소극적인 자세가 유리합니다. **77년생** 고심하던 일들이 해소되고 희망으로 나아가는 운입니다. **89년생** 경솔한 행동을 보이기 쉽습니다.
- 54년생** 경솔한 행동으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66년생** 한꺼번에 얻으려 하지 마세요. **78년생** 서두르면 행운을 놓치니 늘 조심하세요. **90년생** 노력을 안 해도 복이 저절로 들어오게 됩니다.
- 55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더 주도록 하세요. **67년생** 사랑을 조금 더 베풀도록 하세요. **79년생** 어려운 일이 보다 쉽게 해결됩니다. **91년생** 뒷사람과 상의한 다음 차분히 행하도록 하세요.
- 56년생** 명석한 자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68년생** 사람은 언제나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80년생** 심신이 아주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92년생** 즐거운 술자리를 갖게 됩니다.
- 57년생**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가지세요. **69년생** 주변 사람들과 괜히 다투지 마세요. **81년생**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93년생** 인간관계가 순조롭고 재물운도 따르는 시기입니다.
- 58년생** 오늘의 가능한 단정한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70년생** 재래시장의 활기참을 느껴보는 것이 좋습니다. **82년생** 악세사리를 하는 것이 이미지에 도움이 됩니다. **94년생** 여행을 떠나세요.
- 59년생** 기분 좋은 하루로 생동하는 날입니다. **71년생** 먼 곳에서 귀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83년생** 말 조심, 몸 조심하세요. **95년생** 술자리가 있게 된다면 작은 잔으로 한 잔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



김상회의四季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

날마다 좋은 날이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이다. 인생사 고(苦)라 했는데 어떻게 날마다 좋을 수 있겠는가? 좋은 일든 안 좋은 일든 기꺼이 받아들이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된다는 뜻이라. 겨우내 춥고 움츠리게 하던 날씨도 입춘이 지나고 우수 경칩을 지나면 햇살이 소한과 대할 때의 햇살이 아니요, 사뭇 부드럽다 못해 간질거리듯 목둘레에 와 닿는 느낌이 다르다. 봄의 정취를 느끼지 않을 재간이 없다. 인생이 재미가 없고 그날이 그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나이를 먹을수록 이런 감정은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약어는 왜 그리 많은지 외국어와 다를 바 없고 자연스레 '라떼족'이 되어 간다. 그런데 청춘들이라 해도 각자 삶의 무게로 이리저리 치이는 것은 마찬가지인 듯하다.

몸과 마음을 심기일전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순간에 차나 커피를 마시거나 달콤한 쿠키 같은 스위트한 디저트를 먹기도 한다. 당이나 카페인에 뇌 신경에 자극을 주기 때문이다. 필자의 심기일전법은 하루 중이라도 뭔가 마음 답답한 것이 올라오면 바로 눈을 감고 편안히 앉아 호흡을 지켜보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새로워진다. 이외에도 나름대로 '일상 즐긴 법'이 있다. '절기 즐기기'다. 우리 선조들은 한 해에 24번 있는 절기를 하루루 보내지 않았다는 데서 얻은 팁이다. 요즘이야 전통 민속들이 사라져 가고 있지만, 정월 대보름에 오곡밥과 여러 종류의 나물을 준비해 먹고 우수 경칩 때는 고로쇠 물을 받아 마시며, 삼월 삼짇날에는 화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밀전병을 부쳐 먹는다. 단오 때에는 썩이 제철이니 수리취로 썩버무리나 썩떡을 해 먹고 하지 때에 감자가 맛이 제일 좋을 때라 감자를 고슬고슬 찌서 먹는다. 절기로 일일시호일에다 월월호시월(月月好是月)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9	5			1	2	4
7	3					9
				3		
	3	7			1	
5	6			4	9	
	7		5	6		
		1				
	9				8	7
3	7	5			6	2

1			4	7	9	
	3					8
2				8		
7	5	8	4			
1						6
			7	6	8	5
			3			7
4	9					2
	7	4	8			1

2	9	6	8	7	9	2	1	8
2	8	1	9	8	2	9	6	7
9	7	8	2	6	1	2	9	8
8	2	9	7	9	8	6	2	1
6	2	7	2	1	8	9	8	9
8	1	9	6	2	9	8	7	2
1	9	2	8	6	7	2	9	1
9	6	8	9	2	7	1	8	2
7	8	2	1	9	2	8	9	6

6	1	9	2	8	7	2	9	8
8	2	8	9	2	9	1	6	7
2	9	7	1	6	8	2	8	9
9	7	8	9	1	2	8	2	6
9	2	8	9	6	8	7	1	1
8	6	1	7	2	8	9	9	2
7	9	9	8	1	6	2	2	2
1	8	2	6	9	2	7	8	9
2	8	6	2	7	9	9	1	8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8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88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